

민간 사회공헌, 필요한 복지 현장으로 연결 사회공헌 활발한 민간 기업 초청 간담회 개최

- 현수엽 제1차관, 사회공헌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기업 사회공헌 재단·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6일(목)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사회공헌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사회공헌 재단,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등 민간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양과 질에서 모두 성장하고,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등 참여 주체도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 사회공헌 재단) 카카오임팩트, 삼성복지재단, IBK행복나눔재단, 네이버 해피빈,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베어베터, 행복커넥트, 블루버드씨, ▲(유관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민관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및 제약 요인, 제도개선 방안, 유인책 제공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과 복지 현장의 수요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바로잇(crckorea.kr/baroit/)’을 올해 5월 개통하였고, 지역 사회공헌인정제* 운영,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 등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에 대한 사회공헌 심사·인정 및 유인책 제공(장관 표창, 신용·기술보증기금 우대, 홍보 및 사회공헌 컨설팅 지원 등)

현수엽 제1차관은 “고립·은둔청년 등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연성·혁신성·지역 밀착형 실행력을 가진 민간 부문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정부는 오늘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의 사회공헌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044-202-3250
		담당자	사무관	조승연	044-202-3259

